

# 'BTS 등지' 하이브... 오너리스크 태풍

## 방시혁 의장 영장 파문

창사 20여 년 만에 최대 위기  
상장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  
BTS·TXT 등 음반작업 총괄  
추후 법적 판단에 관심 집중

국내 1위 가요 기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하이브가 창사 20여 년 만에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21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05년 빅히트엔터테인먼트(하이브 전신)를 설립해 2013년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데뷔시켰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하며 사세가 급격히 확장했고, 세븐틴이 속한 플레디스, 여자친구 소속사 쏘스뮤직, 미국 이타카 홀딩스 등을 잇달아 인수하며 중소 기획사에서 업계 1위 회사가 됐다.

하이브는 2020년 10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코스피 상장 성공했고, 2024년에는 연예 기획사 가운데 최초로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에 지정되는 등 성장 가도를 달렸다.

방 의장은 그 과정에서 2019년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날 1일 현재 하이브 주식 28.8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가요계에서는 방 의장이 오너 경영인을 넘어 아티스트와 음악 등 회사의 핵심 지식재산권(IP)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방 의장은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아리랑(ARIRANG)'도 총괄 프로듀서(Chief Producer)로서 제작을 주도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에서 초대형 송캠을 열어 신곡 작업을 이끌었고, 수록곡 '보디 투 보디(Body to Body)'에 아리랑 민요를 삽입하거나 광화문 광장에서 대형 컴백쇼를 개최하는 방안 등 새 앨범의 핵심 아이디어를 냈다.

방 의장은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코르티스, 르세라핌, 엔하이픈 등 하이브 소속 대다수 그룹의 곡 작업에도 관여해왔다. 그는 나아가 한국을 넘어 K팝 제작 방식을 해외에 전파해 현지 가수를 선보이는 '멀티 홈 멀티 장르' 전략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썬

### 방시혁 하이브 의장 '1900억 부당 이득' 혐의 타임라인

- 2019년**
  - 방시혁 의장 관련 사모펀드, 기존 하이브 주주의 **지분 매집 시작**.
  - 방 의장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 없다"** 주장
- 2020년 10월**
  - 하이브, **코스피 상장**.
  - 방 의장 측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약 1900억 원 수익 추정**
- 2024년 12월**
  - 경찰, 첩보 통해 **입건 전 조사 착수**
- 2025년 6월 7일**
  - 경찰, 한국거래소 및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 8월 11일**
  - 방 의장 **출국 금지**
- 9월-11월**
  - 방 의장 5차례 대면 조사
- 11월 19일**
  - 법원, 방 의장 하이브 지분 **1568억 원 추정 보전**
- 2026년 4월 초**
  - 주한 **미국대사관**, 방 의장 **출국 금지 해제 요청**
- 4월 21일**
  - 경찰, 방 의장 **구속영장 신청**



그들 방탄소년단(BTS). 연합뉴스

츠아이(미국), 아오옌(일본), 산토스 브라보스(라틴 아메리카) 등 여러 현지형 그룹을 선보였다. 방 의장은 썬츠아이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가요계에서는 회사 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방 의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하이브 내 콘텐츠 생산과 인도-라틴 아메리카 등 해외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이브는 지난해 연결 기준 연간 매출 2조 66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신인 데뷔 비용과 사업 구조 재편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72.9% 감소해 경영 내실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태다.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의 컴백이라는 대형 호재와 오너의 사법 리스크라는 악재를 동시에 마주한 상황으로, 향후 방 의장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방 의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 영장 신청에 대해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

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하이브의 주가는 종가 기준 전날보다 2.35% 하락한 24만 9000원을 기록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하이브의 가장 큰 위기 요소는 사실 오너 리스크다. 대중이 하이브에 갖는 불안감은 여기서 비롯된 측면이 가장 크다"며 "아티스트 행보에 있어서 방 의장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72년생인 방 의장은 1994년 제6회 유재하음악경연대회에서 동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데모곡을 들은 박진영의 제안으로 1997년부터 JYP엔터테인먼트에서 지오디의 '하늘색 풍선' '0%', 비의 '나쁜 남자' 등의 히트곡을 만들었다. 2005년 빅히트로 독립한 이후에도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2AM의 '죽어도 못 보내' 등의 히트곡을 만들어 스타 작곡가로 활약했다.

연합뉴스



## "점이 많아서 촬영장 갈때마다 각오"

"원래 점이 많아서 호러물을 잘 못 봐요. 하지만 촬영장에 들어설 때만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멘털을 다잡고 촬영에 임했죠."

가수 겸 배우 강미나(사진)는 21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새 넷플릭스 시리즈 '기리고' 제작발표회에서 공포물인 이번 작품을 소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마음을 다잡았다고 고백했다.

강미나는 "극 중 제가 맡은 '나리'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캐릭터"라며 "그 이상은 스포일러(유출)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나리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24일 공개를 앞둔 '기리고'는 소원을 들어주는 앱 '기리고'에 소원을 빚고 대학생들이 예고된 죽음의 저주를 피하고자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렸다. 중학교 때부터 절친인 세아(전소영 분), 나리(강미나), 건우(백선호), 하준(현우석), 형욱(이효제) 다섯 명의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과거 걸그룹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통해 얼굴을 알린 강미나를 제외하면, 이 작품은 신인 배우들을 중심으로 주연급 라인업이 채워졌다.

연출을 맡은 박윤서 감독은 "대중에게 너무 익숙한 얼굴보다는 신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배우들을 찾으려 했다"며 "넷플릭스 측에서

도 신인 배우와 함께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아주신 덕분에, 원하는 대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고 캐스팅 뒷이야기를 전했다.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세계적으로 얼굴을 알릴 기회인 만큼, 각 캐릭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배우들의 열정은 더욱 뜨거웠다고 한다.

'기리고' 앱을 친구들에게 처음 소개해 사진의 표문을 여는 '형욱' 역의 이효제는 오타쿠(특정 분야에 심취한 마니아) 같은 캐릭터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20kg를 증량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이효제는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아니라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젠 살을 빼는 게 더 어려워진 것 같다"며 웃었고, 박 감독은 "평소엔 이효제 배우가 워낙 잘생겨서 그런 이미지를 감추고 싶은 마음에 증량을 부탁했다"며 현장에서 사과하기도 했다.

또 육상 유망주 '세아' 역의 전소영은 실제 국가대표 선수에게 두 달간 육상 훈련을 받으며 캐릭터를 준비했고, 이 공개 천재인 '하준' 역의 현우석은 실제로 코딩 수업을 받았다. 아울러 아이들을 구하려 애쓰는 무당 '방울'을 연기한 노재원은 실제 무당의 자문을 거쳤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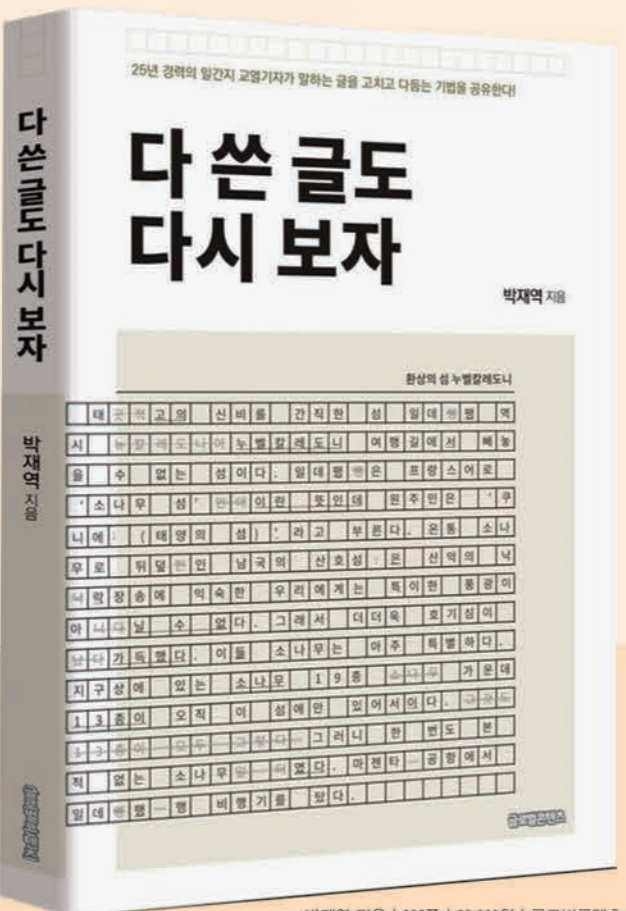
이 작품은 앞서 넷플릭스 '킹덤 2', '디즈니+ '무빙' 제작에 참여했던 박윤서 감독의 첫 메인 연출작이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드라마 '기리고' 소원 앱 둘러싼 저주 서사 강미나, 공포물 처음 도전 "멘털 다잡고 촬영 임했다"



사진=연합뉴스

# 25년 경력의 일간지 교열기자가 말하는 글씨 고치고 다듬는 기법 공유



군더더기 없고 쉽게 읽히는 간결한 문장에  
에세이 읽을 때와 비슷한 속도와 난이도  
애매한 '어문 법' 익히고 싶은 분에게 추천



단순히 말을 문자로 옮기면 글이 된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말에 '듣는 이(聽者)'가 있듯이 글에도 '읽는 이(讀者)'가 있다. 혼잣말을 듣는 이는 자신이며 일기를 읽는 이 역시 자신이다. 실언(失言)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실문(失文)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면 쓰는 글이 좋아야 읽는 이의 평도 좋을 것이다.

-서문에서

박재혁 지음 | 336쪽 | 20,000원 | 글로벌콘텐츠